

光盘



读故事 学韩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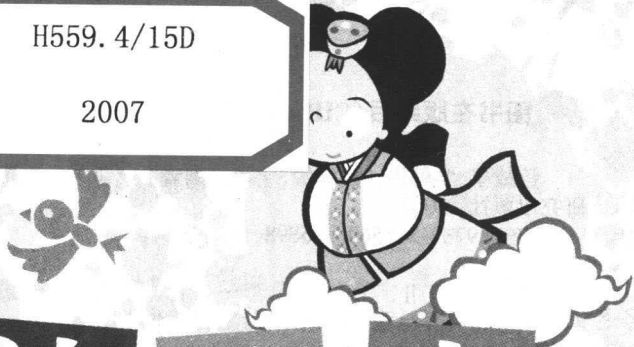
高红姬 李成道 /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H559.4/15D

2007



读故事 学韩语

高红姬 李成道 /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读故事 学韩语 / 高红姬, 李成道编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8

ISBN 978-7-5600-6898-5

I. 读… II. ①高… ②李… III. ①朝鲜语—语言读物
②民间故事—作品集—韩国 IV.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29658 号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高 静

封面设计: 张 峰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国防印刷厂

开 本: 787×965 1/32

印 张: 7.125

版 次: 2007 年 8 月第 1 版 2007 年 8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6898-5

定 价: 21.00 元 (含 MP3 光盘 1 张)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前言

近二十年来，学习韩国语的人数有增无减，各种韩国语初级教程和中高级教材相继出现，而可用来阅读的韩国语读物却非常罕见。本书就是这样一本让具有一定韩国语基础的人通过阅读来进一步提高韩语应用理解能力的韩汉对照注释读物，从中不但可以学习到韩国语的单词与语法，而且还可以了解到韩国的传统文化。

本书收集了韩国国内流传较广的民间故事共十篇。这些故事多是表达了劝善惩恶的思想。虽然部分故事带有一些迷信色彩，却也表达了普通百姓扶助弱小，渴望公平正义的愿望。所选故事在编辑时尊重原文风格，保留故事原貌，真实地体现韩国的民俗文化，以使读者在阅读传统故事的过程中，对韩国传统文化也有所了解。由于中韩两国同属儒家传统文化圈，部分故事与国内的传说相似，从中我们不难看出两国文化的相似之处，而同时也可以发

现各自不同的文化特点。

为了便于读者对照，帮助读者加深对原文（韩国语）语言结构的理解，故事的译文尽量采用了直译方式。对故事中的重点词汇及主要语法形态则以脚注形式做了简单的说明。每篇故事后还布置了若干练习题（附标准答案）。韩国语学习者通过练习可以加深对故事的理解，也可以巩固已学的单词和语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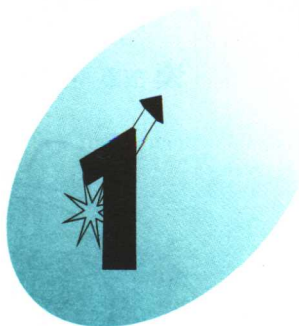
编者

2007年8月

目 录

- 1 은혜 갚은 까치 1
喜鹊报恩
- 2 금도끼와 은도끼 23
金斧头和银斧头
- 3 효성을 다한 호랑이 43
老虎孝子
- 4 콩쥐와 팥쥐 63
孔菊和潘菊
- 5 빨간부채와 파란부채 81
红扇子和蓝扇子
- 6 선녀와 나무꾼 101
仙女和樵夫

7	흑부리 영감 121 大瘤子老爷爷
8	장화와 홍련 139 薔花和红蓮
9	해님과 달님 153 太陽和月亮
10	우렁이 색시 173 田螺姑娘
	연습문제 답안 202 練習題答案



은혜 깊은 까치
喜鵲報恩





옛날에 글을 읽는 선비들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몰려 왔습니다.

어느 시골에 글 솜씨뿐만 아니라¹⁾ 활 쏘는 솜씨 또한 뛰어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비도 과거를 보러²⁾ 한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 숲을 지나가던³⁾ 젊은 선비는 어디선가⁴⁾ 안타깝게 울부짖는 까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까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⁵⁾ 커다란⁶⁾ 구렁이가 입을 찢어 벌리며 까치 둥지를 삼키려고 했습니다⁷⁾.

어미까치는 둥지 안의 새끼를 구하지 못해

까치 [名] 喜鹊

선비 [名] 书生

과거시험 [名] 科举

한양 [名] 汉阳

시골 [名] (首尔) 以外的
地方; 乡下

뛰어나다 [形] 出众

숲 [名] 丛林

안타깝다 [形] 焦急

울부짖다 [动] 号叫

커다랗다 [形] 巨大

구렁이 [名] 蟒蛇

찢어 벌리다 [动] 张得很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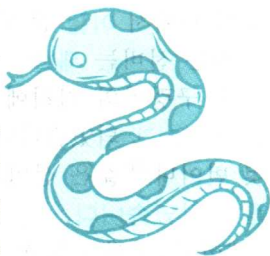
둥지 [名] 巢

새끼 [名] 雏儿



很久以前，书生们为了参加科举考试，都向汉阳——也就是现在的首尔蜂拥而去。

在一个村子里，有一个年轻的书生。他不光文章写得₁好，箭也射得很棒。此刻他也正在赶往汉阳参加科举考试的途中。书生穿过丛林的时候，不知从什么地方传来喜鹊急促的鸣叫声，他朝声音传来的方向一看，一条巨大的蟒蛇正张着血盆大口想要吞掉喜鹊的窝。



喜鹊妈妈因为没办法救出窝里的小喜鹊，

- 1) - 뿐만 아니라 : 接在体词后面，表示“不仅……而且……”。
- 2) - (으)러 : 接在谓词词干后面，表示目的。后面经常与表示趋向的动词“가다, 오다”等搭配使用。
- 3) - 던 : 接在谓词词干后面，表示说话者回忆过去时间段里正在进行中的动作或状态，在句子里做定语。
- 4) 어디선가: “어디에서인가”的缩略形，表示“不知从哪里”。“-ㄴ / 은 / 는가”在句中接在谓词后面，表示推测。
- 5) - (으)니 : 用法较多。这里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前一分句为后一分句的内容提供前提。
- 6) 커다란 : “커다랗다”的定语形式，一些以“중”收尾的形容词词干在与定语形式的词尾“-ㄴ”相结合时，“중”收音脱落。
- 7) - (으)려고 하다 : 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打算。

등지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⁸⁾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재빨리 활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화살은 구렁이의 머리에 명중하여⁹⁾ 아기까치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¹⁰⁾. 어미까치는 고맙다는 듯¹¹⁾ 몇 번이나¹²⁾ 젊은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허허, 새끼들을 잘 키우거라¹³⁾.”

젊은 선비는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기분 좋게¹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쉼 곳을 찾던 젊은 선비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불빛을 향해 가보니 숲 속에 버려진 낡은 절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¹⁵⁾ 뜻밖에

어찌하다 [动] 怎么办

재빨리 [副] 赶紧, 迅速地

활을 쏘다 [惯] 射箭

다행히 [副] 幸好

화살 [名] 箭

명중하다 [动] 命中

목숨을 건지다 [惯] 救命

빙빙 돌다 [惯] 转好几圈

날개를 파닥이다 [惯]

拍打翅膀

키우다 [动] 养育

길을 떠나다 [惯] 启程

날이 저물다 [惯] 天黑

희미하다 [形] 模糊

낡다 [形] 旧, 陈旧

절 [名] 寺庙



不知所措地在窝的上方叫着。

年轻书生迅速射出一箭，幸运的是箭一下子就射中了蟒蛇的脑袋，小喜鹊们得救了。喜鹊妈妈拍打着翅膀在年轻人的头顶上转了一圈又一圈，好像是在感谢他似的。

“哈哈，好好照顾你的孩子们吧！”

书生做了好事，心情特别好，他又继续上路了。

不知不觉间天黑了下来，书生正在寻找过夜的地方，这时他看到远处有微弱的灯光，走过去一看，树丛中有一座荒芜的古寺。

“有人吗？”

书生原以为没有人，却意外地看到一个白

- 8) - (으)르줄 알다 / 모르다 : 接在动词词干后面, 表示“知道 / 不知道……”, 这里的“어쩔”是“어찌할”的缩略形。
- 9) - 아 (어 / 여) : 接在谓词词干后面, 表示原因。
- 10) - 게 되다 : 接在谓词词干后面, 表示由于他人的行为或状态而做某事或造成某种状态。
- 11) - 는 듯 : 接在动词词干后面, 表示“像……似的, 好像……”。这里的“고맙다는”是“고맙다고 하는”的缩略形。
- 12) - (이) 나 : 接在体词后面, 表示数量比预想到的还要多。
- 13) - 거라 : “해라”体命令式终结词尾, 一般用“- 아 / 어 / 여라”形式, 但“가다, 자다, 하다”等动词可以用“- 거라”。
- 14) - 게 : 接在形容词词干后面, 使其变为副词形。
- 15) - 고 생각하다 : 接在“해라”体句子后面, 表示“想到, 认为”。

도 안에서 하얀¹⁶⁾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어 갈까 합니다¹⁷⁾.”

여인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¹⁸⁾ 짧은 선비를 안으로 들여 보내 주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온 짧은 선비는 짐을 풀어 놓자마자¹⁹⁾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축축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조이는 듯하여 잠에서 깹습니다. “허억!” 짧은 선비는 너무 놀라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짧은 선비의 몸을 칭칭 감아²⁰⁾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무서운²¹⁾ 구렁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짧은 선비의 얼굴이 온통 젖은 것입니다.

“네가 낮에 죽인 구렁이는 바로 내 남편이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억울해할 필요는 없겠지²²⁾?”

하룻밤 [名] 一夜

고개를 끄덕이다 [惯] 点头

짐을 풀다 [惯] 解行李

잠이 들다 [惯] 睡着

축축하다 [形] 湿漉漉

가슴이 답답하다 [惯] 胸闷

조이다 [动] 勒紧

침 [名] 唾沫

꿀꺽 삼키다 [惯] 一下子咽下

칭칭 감다 [惯] 缠好几圈

뚝뚝 떨어지다 [惯]

不停地往下流

온통 [副] 全, 都

원수를 갚다 [惯] 报仇



衣女子从寺庙里走了出来。

“天色暗了，小生想在此借宿一晚。”

那女子没有说话，只是点了点头，把书生让到了屋里。长途劳顿，书生一解下行李就沉沉地睡着了。睡着睡着，不知是什么湿漉漉的东西缠在胸口，只觉得胸口发闷，像是（什么东西）勒紧了脖子似的，书生一下子醒了过来。“啊！”书生大吃一惊，咕地咽了一口唾沫，一条巨大的蟒蛇正紧紧地缠住他的身子。但奇怪的是，那可怕的蟒蛇眼里不停地流出泪水，把书生的脸都打湿了。

“你白天射死的蟒蛇就是我的丈夫，我是来报仇的，你应该不会觉得冤枉吧？”

- 16) 하얀: “하얗다(白)”的定语形式，一些以“ㅎ”收尾的形容词词干在与定语形式的词尾“-ㄴ”结合时，“ㅎ”收音脱落。
- 17) - (으)ㄹ까 하다: 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想法、打算。
- 18) - 더니: 用法有几种。这里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做完一个动作，接着做另一个动作，主语通常是第三人称。
- 19) - 자마자: 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一……就……”。
- 20) - 아 (어 / 여): 用法较多，这里接在动词词干后面，起连接两个动词的作用。
- 21) 무서운: “무섭다(害怕)”的定语形式，一些以“ㅂ”收尾的谓词词干在与定语形式词尾“-ㄴ”相结合时，“ㅂ”变为“우”。무섭은(×)。
- 22) - 겠지: “- 겠”是表示推测的词尾，“- 지”是带有肯定语气的疑问式终结词尾。

“무, 무슨 소리냐? 가엾은 까치새끼들을 구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일부러 내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찌 죽일 수 있단²³⁾ 말이나²⁴⁾? 우리는 새나 들짐승을 잡아먹고 사는²⁵⁾ 동물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나?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이나?”

“하지만 그때는 새끼까치를 살리려는²⁶⁾ 마음에²⁷⁾.....”

“똑같은 생명인데 까치 편만 들다니²⁸⁾. 아무튼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분명하니 너를 살려 둘 수가 없다.”

말을 듣고 보니 젊은 선비는 자신이 경솔하게 살생을 하였음²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구렁이를 쫓아버리거나³⁰⁾ 가벼운³¹⁾ 상처를 입히기만 할³²⁾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엾다 [形] 可怜
일부러 [副] 故意
해를 끼치다 [惯] 伤害
어찌 [副] 怎么能
들짐승 [名] 野兽
잡아먹다 [动] 捕食
죽임을 당하다 [惯] 遭到杀害
살리다 [动] 救, 救活

편을 들다 [惯] 袒护, 偏护
아무튼 [副] 反正
분명하다 [形] 分明
살려 두다 [惯] 使……活命
경솔하다 [形] 轻率
살생(을) 하다 [惯] 杀生
그냥 [副] 只, 就那样
쫓아버리다 [动] 赶走



“什……什么？可是，解救可怜的小喜鹊不是罪过啊！我并不是故意杀死你的丈夫的！”

“但我丈夫没有害你，你怎么能杀死他呢？我们本来就是吃鸟和田里的小动物过活的！这难道有错吗？必须得死吗？”

“可是当时我只是救小喜鹊心切……”

“同样都是生命，你却只为喜鹊着想。不管怎样，我丈夫分明是因你而冤屈枉死，我不会让你活命的。”

听了这番话，书生也不得不承认自己轻率地结束了一条生命。毕竟当时也可以只把那条蟒蛇赶走或者只让他受点儿轻伤的。

-
- 23) - (으) ㄴ 수 있다 / 없다 : 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可能性，相当于“能 / 不能……”。
- 24) - 는 말이다 : 接在“해라”体句子后面，表示强调。在这里“있단 말이나”是“있다는 말이나”的缩略形，是个反问句，表示否定。
- 25) 사는 : “살다”的定语形式，一些以“ㄴ”收尾的谓词词干在与“ㄴ”打头的词尾相结合时，“ㄴ”脱落。
- 26) - (으) 려는 : “- (으) 려고 하는”的缩略形，接在动词词干后面，表示“想要……的……”，是定语形式，后面接体词。
- 27) - 에 : 助词“-에”的用法很多，在这里表示原因。
- 28) - 다니 : 接在谓词词干后面，对某件事情表示惊讶、感叹、愤慨等，一般用于自言自语。
- 29) (으) ㄹ : 接在谓词词干后面，使其变为名词形，后面可以接助词。
- 30) - 거나 : 接在谓词后面，表示“或者”。
- 31) 가벼운 : “가볍다(轻)”的定语形式，参照本课 21)。
- 32) - 기만 하다 : 接在谓词词干后面，表示“只是……，光做……”。这里“-기”是词缀，使谓词变为名词形，后面可以接助词。

“듣고 보니³³⁾ 내가 경솔하였다. 나를 죽여야만³⁴⁾ 네 분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하는 수 없지.”

“흥, 이제야 네 잘못을 깨달은³⁵⁾ 모양이로구나 36, 37) ”

구렁이는 긴³⁸⁾ 혀를 날름거리며 젊은 선비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젊은 선비가 치사하게 목숨을 구걸하자 않자 그냥 쉽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좋아, 나도 그냥 죽이지는³⁹⁾ 않겠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마⁴⁰⁾. 이 철에는 오래된 종이 하나 있다. 만일 날이 밝기 전에 그 종이 세 번 울리면 널 살려 주지.”

“아무도 없는 이 빈 절에서 누가 종을 울린단 말 이냐?”

상처를 입히다 [慣] 使受伤
분하다 [形] 愤怒
사라지다 [动] 消失
하는 수 없다 [慣] 没办法
깨닫다 [动] 意识到
혀 [名] 舌头
날름거리다 [动] 吐信子

가만히 [副] 悄悄地
치사하다 [形] 低贱
구걸하다 [动] 乞求
오래되다 [形] 陈旧
날이 밝다 [慣] 天亮
종이 울리다 [慣] 钟响
살려 주다 [慣] 饶命